

## (9) 새로운 세상과의 언약 (9:1-17)

## 1)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 (9:1-7)

- 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 3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 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 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 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 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 - 9:1/ '복을 주시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범죄와 홍수의 영향은 새로운 세상에서 옛 소망을 완전히 빼앗지는 못함.
- \* 시내 언약을 앞서는 강복으로써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남녀에게 미침.
- \* 자녀는 주님의 창조 강복에 대한 보편적 증거.
- \* 아담이 셋을 통해 의로운 씨의 조상이 되었듯, 노아도 강복이라는 특권을 가진 계보를 번식(아브라함~야곱). '아들들': 10장 이후로 창세기 진행의 중심. 셈은 데라의 아들 '아브람'으로 끝나는 가장 중요한 족보 목록의 시조.

## - 9:2-3/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 \* 정복과 통치의 명령이 없음.
- \* 동물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을 보증하기 위해 동물에게 인간에 대한 공포를 주심.
- \* 동물의 생사를 인간 조정자의 권한 아래에 두심.
- \* 노아의 후손을 위해 더 안전한 하늘을 창조하셨듯,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하심 (신 2:25, 11:25).
-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육식 허용에 대한 공식적인 진술.

## - 9:4/ '그러나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생명을 취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엄격한 경계

- \* 혈액이 남아 있는 생고기를 먹는 일을 금하심. 아직 살아 있는 동물을 먹는 일을 금지.
- \* '피'와 '생명'의 병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 17:11).
- 속죄-생명-피의 연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비
- \* 비록 인류에게 생명 유지를 위해 허락되었더라도 동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 동물을 먹기 위해 살해할 수 있는 특권은 동물을 보살필 책임과 함께 허락됨.
- 이스라엘의 안식일에는 동물도 사람과 함께 안식을 누림 (출 20:10).

## - 9:5/ '반드시...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 \* 제재를 언급함으로 인간의 '생명피'를 취한 것이 만드는 중대한 결과를 강조.
- \* '찾으리니' - 계산을 요구한다는 의미. 생명이 침해당하면 공격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
- '내가': 범죄자에 대한 고소인으로써 하나님의 위치를 강조.
- \*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하심 -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 (6절)
- '형제면': \* 가인에 의한 아벨 살해를 반영. 가인의 두려움 또한 형제간의 살인.
- \* 본질적인 차원에서 모든 살인은 형제 살인에 해당.

## - 9:6/ '흘리면... 흘릴 것이니': \* 동해복수법의 원리. 범죄는 벌의 무게에 상응해야 함.

-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 '창조언어'를 사용함으로 처형이 왜 악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인지를 설명.
- \* 율법은 개인이나 가족에 의한 사적 보복을 금지했으며 적절한 판결 과정을 요구.

## - 9:7/ '생육하고 번성하며':

- \* 1절의 반복(인클루지오).
- \* 번식의 강복은 인간의 생명이 네피림 때의 사악함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 이를 수 있음.
- \* 출애굽 때 불어난 히브리 인구의 수를 언급할 때 사용된 단어 (출 1:7).
- 이스라엘은 노아와 그의 "씨"에 담긴 새로운 인류에 대한 약속의 수신자로 하나님의 창조 강복 아래 번성했음을 증거.

## 2) 언약과 징표 (9:8-17)

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 9:8-11/ '언약': \* 6:18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

\* 6:17에서는 모든 생명이 멸절될 것을 선포했지만 이제는 모든 생명이 언약의 준비 하에 보호.

\* '언약을 세우리니': 아브라함과의 언약 수립(창 17:7, 9), 모세 언약 (출 6:4)

- 노아 시대에 전 인류에게 전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

죽장 약속과 이스라엘 건립을 통해 강복을 성취하실 것.

'결코 다시는': \* 반복 사용. 8:21의 강조. 하나님은 결코 물로 땅을 잘라 내고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심.

\* 이 언약은 노아 편에서 지킬 의무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징표도 하나님이 제시하심.

- 9:12/ '징표': \* 징표가 언약에 부과됨. 말씀으로 명한 것을 제의적으로 확정하려는 목표.

\* 언약을 이루는 일은 주님의 사역 - '내가 만든다'

\*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을 위한 보편 언약.

'사이에': 수신자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없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자기 의무이며 일방적인 성격임을 강조.

'영원한 언약': \* 특정 가족의 후손들에게 제한된 아브라함 언약에 반하여 모든 세대에 적용될 영원한 언약.

\* 안식일 언약 (출 31:17), 아론의 비느하스가 가진 제사장 직 (민 25:13), 다윗의 왕조 (삼하 23:5), 회복되고 구원된 이스라엘 (렘 32:40), 그리스도인을 위한 언약의 피 (히 13:20).

- 9:13/ '무지개': \* '활'로 번역되는 단어. 승리의 상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도록 일깨우는 표식.

\* 무지개를 이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루터의 견해) 원래 있던 무지개에 의미를 부여하심 (칼빈의 견해)

- 9:14-16/ '무지개가... 나타나면':

\* 징표의 기능을 상술하고 어떻게 이 징표가 언약을 보증하는지를 설명하며 언약의 구체적 내용에 결부시킴.

'기억하리니': \* 언약 언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심 (출 6:5, 시 106:45).

\* 홍수 내러티브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 (8:1).

\* 땅에 있는 가족들의 미래 안전에 대한 보증은 하나님의 성품과 노아의 구원이라는 선례에 근거.

\* 유월절 때 문설주에 바른 피는 유월절 사건의 징표. 재난을 막아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됨.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아니하리니': 홍수 이전의 위협 언어를 뒤집음 (6:17).

'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함으로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무임을 공식적으로 선언.

'기억하다'의 반복: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묘사.

- 9:17/: '언약의 징표', '내가 세웠다', '모든 육체': 앞서 말한 것을 개관하면서 공식적인 합의 체결을 마무리.

## (10) 노아의 아들과 미래의 강복 (9:18-29)

## 1) 노아의 아들과 (9:18-19)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 9:18/ '셈과 함과 야벳': 노아로부터 아들에게로 관심을 옮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유일하게 언급되는 계승자. 저주의 대상이 됨.  
'가나안': 장차 거주하게 될 가나안 민족의 도덕적인 역사와 성향이 의심스러움을 경고.

## 2) 노아의 저주와 축복 (9:20-27)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 9:20-21/ '노아가 농사를':  
\* 홍수 이후 노아는 흙을 경작. 고대 신화와는 달리 성경은 포도주를 신이 아닌 인간의 성취로 설명.  
\* 아담이 에덴 정원의 관리자였듯, 노아는 경작하는 사람('땅의 사람')이며 아담은 '땅(아다마)'에서 나옴.  
아벨 살해로 인해 피로 얼룩진 땅과 가인이 땅에서 받는 저주, 라멕이 품은 소망대로 땅이 위로 받음.  
'시작했다(할랄)': 범죄가 시작됨을 암시.  
\*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6:1)'. 니므롯을 자라서(할랄) 용사가 되었으며  
바벨탑을 세운 자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행동을 시작(할랄)함(11:6).  
\* 노아가 농경이나 포도나무 재배의 창시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 '큰 홍수의 물에서 자기 땅을 지켜낸 자가 포도주에 무릎을 꿇다'.  
\* 그의 만취와 저주 사이에 상관관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 아담이 죄를 통해 자신의 벗었음을 '알았던' 것처럼(3:7, 10-11), 노아도 취하여 벗음으로 스스로를 모멸.  
- 9:22-23/ '가나안의 아버지 함': \* 가나안에 대한 저주의 예견.  
\* 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보인 무례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를 야기.  
'벗은 것을 보았고':  
\* 함의 역할은 아담이 벗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수단이며 그런 행동으로 저주 받은 뱀에 비교.  
\* 함도 선택된 강복 계보에 대한 대적으로서 가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회복시킴.  
\* 하나님이 아담의 '옷을 입혔던' 반면 함은 아버지를 벗은 채로 두었음.  
\* 함이 저지른 특정한 종류의 성범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근거가 희박함.  
- 고대 사회에서 벌거벗음의 의미와 부모를 모욕한 자녀가 최고의 형벌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덮었으며... 보지 아니하였더라':  
\* 본 함과 보지 않은 형제들 사이의 깊은 대조.  
\* 이 형제들은 아담과 하와를 입혔던 에덴의 하나님을 모방함.  
\* 이 두 사람은 노아의 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용하기를 거부했음.  
- 9:24/ '행한 일을 알고': '행하다'는 에덴 범죄에 대한 또 하나의 암시('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3:13).

- 9:25-27/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의 죄로 인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유

\*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후대 이스라엘의 모형이며

함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으로 애굽과 가나안의 모범으로써 아버지의 성격은 아들들의 행동을 예견.

\* 함의 범죄 때문이 아닌 그들이 함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로 정복 당하게 되는 것.

\* 아버지에게 무례를 보인 함에게 합당한 응보로서 저주가 함의 아들을 향함.

‘중들의 중’: 가장 비천한 중. 가나안은 두 형제 모두에게 종속되게 될 것.

\* 이 저주는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으며, 현대의 인종이나 민족과는 관계 없음.

- 이스라엘 또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본 받을 경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됨.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복종시킬 것이라는 약속.

-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요셉이 확신하고 모세에게 주신 명령.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 야벳이 셈의 그늘에 살게 됨으로 장자의 축복이 셈에게 주어짐.

\* 야벳 또한 셈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가나안을 종으로 거느리게 될 것.

\* 야벳의 후손(소아시아, 유럽)이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확정하기는 어려움.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 이사야는 함의 후손(애굽과 앗수르)이 셈의 미래의 후손(이스라엘)과 화목하게 될 것을 예고(사 19:23-25)

### 3) 노아의 죽음 (9:28-29)

28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고

29 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 9:28-29/ '노아가… 죽었더라': 노아는 구세기와 홍수 이후 이어질 세계 사이의 연결점.